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1년도 표어 ⊗

임하소서 성령이여(행1:8)

⊗ 행동지침 ⊗

- 1. 부흥과 성장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 2. 민족과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
- 3. 일치와 증거가 있는 삶을 산다.
- 4. 내가 먼저 변하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기쁘다 구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랴

-오늘 저녁 찬양으로 영광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성탄절은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이며 경하해야 할 명절이다.

우리교회는 오늘 저녁 할렐루야 찬양대가 준비한 조셉 마틴의 겨울장미 칸타타 곡으로 성탄축하음악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24일(월) 성탄전야 (크리스마스 이브)예배는 오후7시에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이 나신 아기를 영접하며 감사하는 순서로 어른들과 함께 경배를 드린다.

이날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산타 클로스 할아버지들이 대거 서울

교회를 찾아온다.

25일(화)성탄절에는 목자들처럼 새벽을 깨우는 새벽 송을 대학부, 청년부가 해마다 진행해 왔고 새벽5시에는 성탄새벽예배가 있다.

오전11시 성탄감사예배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이 시간에는 성탄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한다.

성탄절 저녁은 가정에서 오신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을 가정으로 올헤의 성탄절을 지키기로 한다.

성탄절 축하 일정표	
23일(주일)	오후 5시 성탄축하음악예배 (할렐루야 찬양대)
24일(월)	오후 7시 성탄전야예배 (교육1국)
25일(화)	오전 5시 성탄 새벽예배 오전 11시 성탄감사예배

영원을 사모하는 젊은이들의 모임

-아담과 이브의 만남-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베짖을 만나는 것은 어찌보면 우연처럼 보이나 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이 일을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책임적 존재이다. 오는 12월 29일(토) 오후3시 우리교회 청년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감하게 짝 찾기를 시도한다. 강남노회 산하 교회 청년들을 초청하여 찬양과 말씀·특강과 레크레이션을 통해 영원을 사모하는 젊은이들의 모임을 마련했다.

주저하거나 부끄러워 하지말고 젊은이들이여 용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을 갖도록 적극 참여 해보자.

이중윤 목사 설교 위성방송 시작하다.

우리교회 담임목사인 이중윤 목사의 설교가 'C3TV기독교 위성방송'을 통하여 방송되고 있다. 방송되는 설교는 '제자의 도' 시리즈로 지난 12월17일부터 7주간 방송되고 있다. 이 목사의 설교를 위성방송으로 보려면 위성방송 수신기를 장착한 TV에서 가능하며 케이블 TV를 통하여 거주지역에서 중계하는 곳에서는 시청할 수 있다. 방영이 되지 않는 곳은 지역케이블 방송사로 전화 요청하기 바란다. 방송시간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전 7:00~7:30 이며 같은 날 오후 15:00~15:30에 재방송된다.

연말 연시 교회 행사	
12월26일(밤)~28일	교역자 수련회
12월29일(오후3시)	영원을 사모하는 젊은이들의 모임
30일(주일)	특별제직회 · 비전2020운동회원모집 장로안식년 · 권사은퇴식
1월1일(화)	송구영신예배(기독교TV실황중계)
1월3일(목)	강남노회 신년하례회
1월6일(주일)	성찬식 · 순결서약식 · 공동의회
1월7일(월)~12일(토)	청지기수련회
1월14일(월 9시30분)	강남노회 신년연합성회

농어촌 100교회운동 지원안내

2002년도에도 계속하여 농어촌 100교회운동에 참여할 성도나 새로 참여할 성도는 예배시간 중 헌금통이나 교구 목사, 간사, 사무국으로 제출 바란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개역개정판 마 2:5-6)

"In Bethlehem in Judea," they replied, "for this is what the prophet has written: " 'But you,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out of you will come a ruler who will be the shepherd of my people Israel.(NIV Mt Chapter 2:5-6)



... 순례자 교회 사랑 캠페인 ...

† 이렇게 합니다 - 1부 예배에 참석하여 찬양예배까지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는 지하3층에 주차하여, 주차관리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축하메세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중운 목사

새 천년에 진입한 두 번째 성탄절을 맞는다. 가장 평화롭고 기뻐해야 할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포성과 피비린내 나는 살상으로 얼룩져 가고 있다. 기아 질병 전쟁 난민 생명경시와 같은 재앙들이 날로 전염병처럼 번져 가고 있다. 인류의 희망과 평화의 꿈은 21세기 초두에 박살이 나지 않을까 염려된다. 성경에 예언된 종말론적 징후들이 계속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측 없이 닥치는 이 재앙들은 초현대 문명이 지어낸 20세기의 부산물들이다. 물질만능주의를 구가하며 힘의 강국을 자랑하던 미국이 맘모니즘의 상징인 세계무역센터와 무력의 본산지인 펜타곤에 엄청난 재앙을 당하였다.

그 동안 우리는 소위 과학시대를 살면서 첨단기술과 문명의 혜택아래 신천지에 대한 희망을 부풀려 왔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과학의 진보는 인간 삶의 영역을 바꾸어 놓았으며 종교 철학 예술마저 빛을 잃게 했다. 인격과 윤리와 문화가 배제된 채 기술로만 가능한 고도의 과학인간이 나타나게 되고 빵 대신 대체 에너지가 양식이 될 때 식물로 흡의 에너지를 먹고살던 인간의 근본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미증유의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 * *

이 기쁜 성탄절기에 하나님과 교회는 붕괴되어 가고 있는 인류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오신 예수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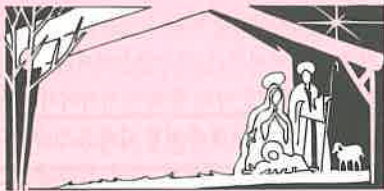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미움과 갈등이 심화되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그대로 좌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최후의 계명인 사랑과 화해의 정신을 이 계절에 실천해야 한다. 비난과 비판, 갈등과 싸움을 버리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절기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어야 한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다. 이 빛이 생명이고 은혜며 소망이고 힘이 되는 것이다. 인간들이 쌓아놓은 과학과 이기심의 바벨탑에 이 빛이 비취짐으로 심판이 가해지고 구원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다.

이 성탄절에 빛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두워진 양심에 비쳐지고 혼란한 세상에 조화와 질서를 세우게 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세워지는 민족사회가 되도록 해야한다. 그리하여 천사들이 외쳤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라는 찬송이 온 누리에 그리고 우리들 가슴속에 울려 퍼지게 하자.

나 어린 적 성탄절

박순봉 권사(2교구)



"예수님 안녕하세요." 유년주일학교 시절 황해도 땅 박촌(朴村) 중앙에 적벽돌로 아름답게 지어진 덕안리 예배당(德安里 禮拜堂)앞에서 주님께 기도 드리던 제 모습이 아련합니다.

심부름 갈 때에는 먼저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숲이 우거져 혼자 걷기에는 무서워 예수님께 기도 드리고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하고 "아무 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 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찬송 부르면서 무서움을 잊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된 기도 드림을 몰랐던 나의 유년주일학교 시절을 회고하면 지금 주안에서 자라고 있는 유년부 어린이들이 복음주의적 바른 신앙으로 교육받고 있음은 감사하며 한편으로는 부러운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일본 강점기의 마지막과 공산치하 등 적그리스도의 탄압 속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온 7-80대의 나그네

인생들은 신앙의 황무지에서 살아왔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성도 서로가 가슴으로 축하할 뿐 표현의 자유마저 용납되지 않았고 예배시간에 성탄 축하 찬송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특으로 자유의 땅으로 피난 오게 하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게 하는 기쁨과 감격은 말로다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암흑의 땅 공산치하의 장벽을 넘어 남한 땅에 정착하여 교회를 개척하여 성탄절을 맞았을 때 감격 또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 몸과 마음으로 소리 높여 가슴이 터져라 부르니 목이 메이고 두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짐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큰 잔치(떡국이 고작이었지만)를 준비하고 구역별로 초롱불 하나에 의지하여 밤길을 걸어 성도의 집에서 새벽송을 하면 가족들이 집에서 나와 화답하며 찬송 부르고 때론 옆집사람도 같이 나와 함께 하였습니다. 푸짐한 선물을 받기도 하였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몸에 풍기는 성도들의 모습은 수정같이 정결하며 백합꽃 같이 향기롭고 장미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피난살이 초라한 집으로 새벽송을 도는 성도를 초청하여 성탄의 아침 떡국잔치를 배설 할 수 있게 하여 주셨던 주님께 감사드리며 충성을 다짐하였습니다.

50년 가까운 세월을 뛰어넘은 이 시점에서 그때의 감격이 솟구쳐 옵니다. 순례자의 남은 여정에서 서

울교회 성도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초청하신 예수님을 새 예배당에서 맞이하게 하여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한량없습니다.

하나님의 목회를 지향하시는 이종윤 목사님과 서울교회에 빛 되신 주님께서 임재하시며 성탄을 축하드리는데 모든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성탄의 아침에 복된 땅에서 고통받고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며 복음화된 통일조국이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



새로왔어요

부끄럽지 않은 서울교회 교인이 되립니다.

권혁우(47), 오신옥(40), 권순석(16) 권순원(15) - 1교구

-아버님 어머니 모두 장로이신 권집사님과 목사님의 딸인 오집사님이이룬 가정의 신앙의 뿌리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네요.

양가모두 3대째 믿음이 내려오고 있어요. 40대 이상 양가 집안 어른들이모두 목사님 아니면 장로님이세요. 집안에는 전도대상자가 없지요.

시부모님께서 미션학교를 두 개 설립하셔서 현재 이사장으로 계시고 남편 권집사는 평택 진위고등학교 교장이세요. 미션학교에 다니던 안 민던 학생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 둘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해 나가는 것을 생각해보면 미션학교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오집사님은 이대와 동 대학원에서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시고 미국 노스캐로라이나 주립대학에서 실기코스를 수료하셨는데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요?

호남신대에서 강의를 했고 현재 평택대에 재직중입니다. 그 동안 소망교회, 새문안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남편이 이목사님의 설교도 좋고 교회도 좋으며 가까운 서울교회로 옮기자고 해서 옮기게 됐어요. 사실 저는 여전도회장과 반주를 맡고 있었고 아이들도 학생회 회장을 맡고 있어서 마음에 심한 갈등을 느꼈지만 아내들이 먼저 아빠 말에 순종하여 한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먹고 목사님의 양해를 얻어 등록하게 됐어요.

-서울교회 교인이 된 소감과 계획을 듣고 싶네요.

모태신앙인으로 교회를 다녔지만 1부 가족예배에 네 식구 나란히 앉아 예배드리는게 너무 좋고 아이들도 아중운 목사님 설교를 직접 접할 수 있다는 것이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요. 그래서 요즘 주일 아침이 너무 행복합니다. 예배때 십계명을 낭독하는 것은 집에서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키는 상황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대치동에서 오래동안 살고 있는데 주위에서 순원이 엄마 서울교회 다니더라는 얘기를 들을 때 기분이 좋고 주위에 한 집, 두 집 서울교회 교파가 붙여지는 걸 보면 참 행복해요. 제 아들반의 회장 어머니도 지난 주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훌륭한 새 가족부 프로그램과 실수도 넓게 받아주는 편안한 교회 분위기는 처음입니다. 서울교회 교인으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성준경 장로(할렐루야찬양대 대장)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슬픔의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아끼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모르고 깊은 겨울잠에 빠져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깨우려고 할렐루야 찬양대가 칸타타 "겨울 장미 (by Joseph M Martin)"를 오늘 찬양 예배 시에 연주합니다.

이번 칸타타는 예수님을 장미로 비유하면서 아름답고 화려한 선율과 화음으로 '겨울 장미', '언제 주님 오시려나', '강림의 외침', '추억의 캐럴'등 모두 12곡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 귀에 익숙한 전통 찬송가와 캐럴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사람만을 위하여 오시지 않고 들판에서 양떼를 치는 목동에게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시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구주가 되셨습니다.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어 갈등과 불화와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가득히 퍼지기를 기도합니다.

고 최재규 집사님을 추모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소리 없이 벗어 놓은
 님의 구두
 어찌 벗어 놓고 가시나이까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높은 곳을 향하여
 이제
 영생의 세관이 매여져
 하늘나라 현관에
 겸손히 놓여 있으리

목숨처럼 아긴
 님의 성경책
 어찌 놓고 가시나이까
 말씀으로 민음을 지킨
 승리의 장부!
 저 낙원
 구름다리 건너
 아브라함과
 바울을 만나
 베드로 님은
 님의 나직한 웃음
 환하게 웃어 보이리

평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님의 두 보물
 어찌 두고 흘쩍 가시나이까
 하얀 달빛 젖가슴에 숨겨
 물레 꺼내 볼때

달빛에 젖은 굵은 켈토의 선
 목놓아 부는
 플루트의 떨리는 선
 하늘나라
 한줄기 빛 되어
 새벽의
 이 땅을
 진동하리라

오화영 (12교구)

2002년 각 위원회에 듣는다

온 교회에 찬양이 넘치는 2002년이기를...

노문 함 장로 (찬양위원장)

10여 년 전 오랫동안 찬양 위원장으로 봉사 하였던 장로님이 은퇴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땅에서는 찬송을 잘 부르진 못하였지만 천국에 가면 나도 솔로리스트가 되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그 장로님의 확신에 찬 그리고 사실감 넘치는 고백에 모인 사람들이 진한 감동을 받았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시간, 재능, 물질)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에 부요 하신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이야말로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2002년 새해에는 우리교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가득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다락방에서도 교회학교에서도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에 대증가요대신 찬송가가 항상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년 성탄절을 맞이 할 때는 온 교회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큰 소리가 천군 천사들의 합창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특별히 세움을 받은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은 등록교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찬양대에서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아름답고 음향효과가 좋기로 소문난 새 예배당에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들의 더 많은 동참을 기대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슬픔을 함께 나누며

이관규 장로 (상조위원장)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서울교회의 상조위원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가족으로 슬픔에 잠겨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소천에서부터 천국환송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례의 절차를 장례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여서 도우며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실한 성도님들로 구성된 '갈렙 찬양대'는 고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심을 찬양하며 슬픔을 당한 가정과 조문객에게 진심 어린 찬양을 통해 큰 위로를 안겨드릴 것입니다. 또한 스테반회 집사님들의 헌신의 모습들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많이 격려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 주간 성경공부 수료자 (30회 이상 참석자)

- 주화인 최근자 이경선 이인숙 양춘경 탄금희 이자혁 김경희 박순봉 배영에 배은희 유근종 이웅선 최무순 최규초 최난수 노순례 이갑연 오충례 최형열 이신정 김인순 신정일 심계을 이경규 이봉규 이순례 이혜란 정병무 최일춘 허인숙 남태순 김병숙 김복녀 박순옥 이승민 이남복 홍광숙 김혜경 김만선 백수남 박창희 손재겸 유후자 이광열 이민화 한길동 안창희 권영자 장양일 한금희 박종민 윤은식 이부자 함은희 김숙행 김현주 여현전 강애자 고영철 최학인 강정옥 김중근 김진숙 서춘식 윤봉준 조상희 최경애 최영란 최경숙 최정자 최혜순 이점숙 송옥혜 박연순 백경순 윤찬오 백영희 장정화 전배호 정인택 조옥섭 조정옥 김형택 여옥기 이옥현 정희순 최 완 유 신 황보주자

☞ 금주의 식사제공: 이영주 집사 · 임선철 집사 외 형제 일동 (부친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국동방송(HLX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주일 설교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임마누엘의 삶되게 하소서
2. 새로 임명된 2002년도 일꾼들을 위하여
3. 병상에 있는 환자들,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4. 국가의 안정과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교회약도 :

